

< 당신은 범인이 아닙니다. >

[신상정보]

이름 : 곽편집

나이 : 28세 / 남 /

특이사항 : 윤새롬의 편집자이다.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다. 먹방을 좋아한다.

[자기소개]

안녕하세요 ‘윤선생타로’의 편집자 곽편집입니다.

편집일을 한 것은 거의 6년 정도 되구요. 새롬이랑 일 한지는 이제 2년 되어갑니다.

[알리바이 정황소개]

딱히 약속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

오늘 저녁에 오라고 들었습니다. 한 9시까지 오랬던가요?

마침 가고 싶던 맛집이 있어서 일찍 출발해서 6시 30분에 먹으러 갔구요.

맛집 리뷰를 올린 뒤 제 차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8시 윤선생타로가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어서 그걸 보고있는데 15분에 갑자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. 그래서 서둘러서 왔습니다.

들어올 때 문 앞에서 한호랑 유튜버와 마주쳐서 같이 들어갔습니다. 마침 문이 열려있더라구요. 그런데 들어가니... 새롬이가... 죽어있더군요.

그리고 곧 새롬씨의 남자친구와 모르는 남자가 새롬이의 원룸에 같이 들어왔습니다.

[등장인물]

윤새롬 : 고용주. 비즈니스 관계로 2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.

한호랑 : 라이벌 관계의 유튜버로 알고 있다. 정말 보면 가끔 컨셉이나 멘트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.

유수호 : 모르는 남자

오정성 : 남자친구인걸로 안다.

[당신의 이야기]

당신은 새롬의 편집자입니다.

새롬과 일을 한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.

새롬의 유튜브를 편집해주면서 일하는데 요즘 점점 돈을 잘 안줍니다.

주는 날짜가 조금씩 미뤄지거나 혹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는데요.

점점 피말라갑니다.

내 애장품인 피규어들을 살 수가 없어서 우울해집니다.

어서빨리 장식장을 채워야 하는데여~

그런데! 이게 웬일입니까? 윤새롬이 저의 컬렉션들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.

“그런 못생긴 인형이나 모으니까 돈이 안 모이지!”라며 나의 유미짱을 모독하다니!

가만둘 수 없습니다.

[당일 타임라인]

오전 11시에 일어남

12시 : 11시에 시킨 배달음식이 와서 먹음

4시 : 장비들 챙겨서 오늘 새롬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함.

6시 : 차를 타고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둠.

6시 15분 : 15분 거리에 있는 맛집에 가서 줄서서 기다렸다.

6시 30분 : 맛있게 음식을 시식하였다.

7시 10분 : 차에 돌아왔다. 노트북으로 맛집 리뷰를 작성하였다. (7시 15분에 올라감)

이후 차에서

8시 30분 새롬의 집에 들어갔고,

들어가자마자 새롬의 시체를 발견.

그리고 곧 모르는 남자가 새롬의 남자친구인 정성을 끌고 집으로 왔다.

[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]

새롬이는 보통 리허설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본방에 들어갑니다. 제네럴리딩이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타로를 봐주는 터라 대략 정해진 대본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 리허설을 해서 미리 준비하죠.

새롬이 영상도 찍고, 간단한 컷 편집도 스스로 하는 편인데. 보통은 리허설 한 것도 저에게 보내주곤 하져. 혹시나 영상이 날아갈 수 있으니 백업 삼아서요.
이때는 보통 이메일이나 웹하드로 올려줍니다.
오늘은 받지 못 했습니다.

[당신의 증거들]

1>고용계약서.

당신은 2년전부터 월 200만원씩 받아왔습니다.

근로계약서

주 소 : 오크로 302호 35

주식회사 윤선생 타코

대 표 자 : 윤새롬

주 소 : 편집아 살며로 10호 11

성 명 : 과객전집

생년월일 : 1993 년 5 월 1 일생 (만 27 세)

주민등록번호 : 930501 - 1234567

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 내용

(1) 직 책 : 편집자

(2) 근로부서 : 편집.

(3) 일 급 : 2,000,000 (이백만원)

(4) 근로시간 : 8시 ~ 오후 6시

2. 기타사항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.

2019 년 1 월 3 일

사용자 : 윤새롬

근로자 : 과객전집

새롬

과객전집

2> 통장 : 돈 들어오는 날이 점점 뒤로 미뤄져왔다.


거래내역서 - 급여

	내용	입금
1월 20일	급여	₩2,000,000
2월 22일	급여	₩2,000,000
3월 25일	급여	₩2,000,000
4월 30일	급여	₩2,000,000
6월 1일	급여	₩2,000,000
7월 3일	급여	₩2,000,000
8월 3일	급여	₩1,950,000
9월 15일	급여	₩1,800,000
10월 16일	급여	₩1,760,000

3> 노트북 : 영상편집에 사용하는 컴퓨터다.

	
<p>4> 자동차 주차증 : 오후 6시부터 주차를 해두었다. 주차장은 새롬의 집과 10분거 리.</p>	
<p>5> 신체검사 : 옷이 꽤 재재하고 냄새가 난다.</p>	

	
6> 각종 메모리 카드 : 새롭의 영상들로 가득하다	
7> 집 : 온갖 피규어가 가득하다. 당신의 컬렉션입니다.	

	
8> 음식 리뷰 블로그 올린 시간이 12월 3 일 오후 7시 15분이 다.	
9> 새롬과의 연락	<p>12월 1일</p> <p>편집 : 새롬아. 이번 달 급여는 안 주는 거야?</p> <p>새롬 : 아? 미안 편집 오빠. 내가 급하게 써야하는 돈이 있어서 지금 주기는...</p> <p>편집 : 아니,... 돈을 제때에 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새롬아. 이러면 나도 힘들어. 내 피규어들... 못 산 것들 어떻게 할 건데?</p> <p>새롬 : 미안, 미안. 내가 나중에 진짜 다 사줄게. 우선 지금은 내가 일을 좀 확장하느라고...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안 될까?</p> <p>편집 : 하... 이번달에는 줘야해. 집세도 밀릴 것 같아.</p> <p>새롬 : 응 알았어.</p> <p>근데.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고, 정말 걱정되서 그러는건데.. . 그 피규어들만 안 사면 집세밀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... 오빠도 나이가 있는데 그만 졸업해야지. 매일 싸고 도는 유미짱.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오빠가 여친도 없는거지...</p> <p>편집 : 너 지금 우리 유미짱 모독했어!!!!</p> <p>새롬 : 아, 미안. 여튼 이제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돈 쓸어모은다니까. 아! 오빠. 12월 3일 우리 합방하기로 했어.</p> <p>호랑이 올 거야. 그날 회의할거니까 9시까지 올 집으로 와.</p> <p>편집 : 호랑이? 괜찮겠어? 어면히 경쟁업체인데...</p> <p>새롬 : 웁웁 괜찮아. 꼭 와!</p> <p>편집 :알았어.</p>